

# ‘바둑 4국지’ LG배 세계기왕전 본선 돌입

26·28일 1, 2회전, 韓 16명·中 11명·日 4명·대만 1명 참가

## 한국 이세돌 등 베스트 10 총 출동…中 신예군단도 다크호스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 본선전(이하 LG배)이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25일 개막한다. 우승상금 2억5천만원을 내걸고 한·중·일·대만 등 세계 바둑 4강이 겨루는 국제대회이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대거 16명이 출전, 총 참가자 32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9대1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치러진 이 대회 통합예선전에서 9명이 통과하는 선전을 펼친 결과다.

중국은 11명을 출전시켜 한국과 우승을 다투다. 통합예선에서 전멸한 일본과 대만은 각각 4장, 1장의 국가 시드를 배정받았다.

한국은 시드 진출자 이세돌·이창호·박영훈·목진석·조한승·원성진 9장, 한상훈 8장 등 7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통합예선전을 통해 박정상, 최철한 9장, 백홍석 6장, 강동윤, 김형환 4장, 김지석 4장, 김형우, 최기훈, 김승재 초단 등 9명도 본선 무대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현역 세계 4관왕인 이세돌 9단. 올해

초 벌어졌던 삼성화재배를 석권하는 등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

또 관록의 이창호 9단도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이 대회 최다 우승(4회)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창호는 최근 춘란배·후지쓰 배·응씨배 등 국제대회에서 선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LG배 우승 가능성이 크다.

박영훈, 목진석, 조한승, 강동윤, 원성진, 박정상, 백홍석, 한상훈, 등 한국 랭킹 3위부터 10위까지의 기사들도 언제든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기량이다. 랭킹 1, 2위인 이세돌이 이창호를 포함해 국내 ‘베스트 10’이 충출동한 것이다.

LG배는 전통적으로 강자를 못지 않게 새 얼굴의 활약이 두드러진 대회였기 때문에 젊은 참가자들의 선전도 기대된다. 한국의 김지석, 김형환, 김형우, 최기훈, 김승재 등 신참들도 ‘대형사고’를 칠 기세다. 중국 신예인 뤄자시, 스위에, 왕타오 등도 복병이다.

중국은 구리, 창하오 투톱을 중심으로 룽제, 세하, 왕레이 등 경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 본선전이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25일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12회 대회 개막전 모습.

(사이버 오로 제공)

힘이 풍부한 프로기사들이 나섰다. 일본은 아마시타를 선봉으로 조치훈, 장석 등이 가세했지만 한국과 중국에 비해 무게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이다.

25일 개막식과 조주첨을 마친 뒤 26일 32강전을 치르고, 28일 16강전을 갖는다. 8강전 이상의 경기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오플록기자 kroh@kwangju.co.kr

제14회  
도자기시대

흥분해 버린 송홍석

8보(174~214)

전국 아마최강전  
결승

白 박문홍 7단

黑 송홍석 7단

